건설경제 2018-07-20 (금) 021면

“지자체 발주공사 잇단 입찰 오류” 강원지역 건설업계 ‘족집게’ 점검

강원지역 건설업계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종합 점검한다. 각종 공사 발주 과정에서 발주처의 위임 범위가 넓은 데다 전문업종과 종합업종에 대한 오해를 가진 일선 담당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발주계획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의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19일 강원도와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백시는 전문업종에 오류가 있는 발주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정정 공고했다. 앞서 태백시는 지난 5월1일 서학1길에서 서학로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1600만원으로 발주했다. 애초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은 상하수도공사업이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태백시를 직접 방문해 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태백시에 정정 공고를 요청했다.

태백시는 강원도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5월4일 변경공고를 내고 입찰참가자격을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변경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지난달엔 강원도 인제군을 방문해 입찰참가자격을 적정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난달 11일 공사금액 5억5300만원에서 6억8200만원 규모로 발주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보유업체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이란 주로 빗물에 의해서 도로, 농경지, 도시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빗물을 매개로 형성되는 오염물질이 비점오염물질이다.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된 태백 서학로 도로 개설공사 토목·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정정 이끌어내

업계 “공무원 잦은 순환 근무 종합-전문업종조차 헷갈려해”

건협 강원도회는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해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단일공종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 4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건산법 시행령 21조 상의 부대공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 변경을 요청했다.

이처럼 도 건설업계가 도 지자체에 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공사 발주 시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 다양한 반면, 소속 공무원은 보직이 순환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무가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과거 잘못된 발주사례를 기계적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액이 적으면 전문공종이고, 많으면 종합공종이라는 오해를 가진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건협 강원도회는 공종변경 요청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공사 발주 때 입찰참가자격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협회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발주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